

해상풍력 건설 '착착'...100조원 시장 열린다

정부 2030년까지 14.3GW 국내 보급 목표 태양광 편중 완화 신재생에너지 균형 기대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면서 2030년까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세계적 탈탄소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질서 있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에 정책 초점을 맞춰 '태양광 편중'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설비용량 14.3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상업 운전 해상풍력발전 단지는 제주 탐라(30MW), 서남권(60MW), 영광(34.5MW) 3곳에 불과하다. 개별 단지의 규모도 작아 세 곳을 모두 합친 누적 설비용량은 124.5MW(0.1245GW)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아직 국내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4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7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 같은 목표를 달

성하는 것이 도전적인 상황이다.

1GW는 일반적인 원전 한 기 설비용량 수준이다.

해안선에서 멀게는 수십km 떨어진 바다에 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려면 5MW 터빈이 달린 풍력 발전기 200개를 바다에 꽂아야 한다.

1GW당 건설비를 7조원으로 잡으면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을 국내에 보급하는 데 민간을 중심으로 최대 약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많은 국내외 민간 기업과 기관이 산업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진척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곳은 88개 단지로 설비용량만 27GW에 달한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지난해 11

월 인천에서 70km 떨어진 서해에서 1.6GW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얻었다.

오스테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8조원을 들여 이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가동되면 수도권 100만 가구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에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꾸준히 높여가야 하는 가운데 '태양광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구성비)를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10%에 채 못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2030년까지 확충하기로 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40GW다. 이때까지 확충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3분의 1을 해상풍력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비중은 8%대 13%였다. 정부는 해상풍력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2030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모두 자연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전력원'이지만, 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력 생산 효율 현상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의 잠재력이 커 정부는 질서 있게 보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산업, 제도, 주민 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서 초창기여서 면밀히 준비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보험세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높은 변동 폭을 보이며 보험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트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L당 1천639.5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원 상승했다.

투데이경제



전남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31일 "지난 2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신안군 임자농협에서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농협농기계이동정비단, 농기계 생산업체 전문기술자 등 30여명의 전문기술요원으로 봉사단을 편성, 농가에게 미리 신청받은 트랙터, 경운기, 분무기, 예초기 등 영농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대해 작동점검과 고장수리를 진행했다.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봉사 외에도 영농편의를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농협광주본부, 평촌마을 '팜스테이마을' 지정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31일 "지난 29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무등산 평촌마을을 '팜스테이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김순택 광주농협 조합장, 정태영 평촌마을 위원장,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팜스테이마을은 농가에서 속삭이며 농사, 생활, 문화 체험이 가능하고 주변 관광지 관광과 마을축제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마을이다.

무등산 북쪽자락에 자리한 무등산 평촌마을은 반딧불이와 멸종위기종 수달이 서식하는 등 생태환경이 우수해 2015년 환경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시 내 유일한 농협 팜스테이마을 지정에 축하한다"며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팜스테이마을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한국산 김, 해외서 인기 폭발

올들어 美·中 수출액 40% ↑ ...신안천사김, 대형 유통채널 공급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김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1-2월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시장 수출액은 각각 40% 넘게 증가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2월 김 수출액은 1억4천136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8.1% 증가했다. 물량은 6천740t으로 15.3% 늘었다.

주요 시장 가운데 미국과 중국, 태국 수출액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 김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김 제품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조미 김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1-2월 대미 김 수출액은 2천818만달러로 41.6% 늘었다. 미국 수출 물량은 882t으로 23.5% 증가했다.

미국에서 한국 김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냉동 김밥이 틱톡 영상으로 화제가 되면서 유명 식품품 체인 트레이더조스(Trader Joe's)에서 만나기도 했다.

1억달러 수출공로탑을 받은 신안천사김은 조미김을 미국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채널에 공급한 덕분에 지난

달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20% 증가했다.

중국과 태국에서는 마른김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다.

중국 수출 금액은 2천313만달러로 42.2% 증가했고 수출 물량은 1천278t으로 28.0% 늘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1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1,987,426,822	6개 숫자 일치
2등	81,356,654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579,472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광주·전남 중소기업전망지수 다시 '내리막'

4월 82.6...전월비 3.2p ↓

지난달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던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3월14~20일 광주전남 중소기업 21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대비 3.2p 하락한 82.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81.3, 전남은 전월 대비 7.7p 하락한 83.8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3.3로 전월 대비 6.7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1.6

로 전월 대비 0.6p 상승했다.

항목별 전망에서 수출전망이 지난 달 89.7에서 101.3로 단독 상승했고 내수판매(84.7→79.9), 경상이익(80.2→79.2), 자금사정(77.2→76.2)은 모두 하락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은 91.9로 전월 대비 0.2p 소폭 개선됐다.

3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여론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56.1%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47.5%), 고금리(33.9%)가 뒤를 이었다.

2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71.7%로 전월 대비 1.3p 하락했고 지역별로는 광주 70.2%, 전남 73.1%로 전월 대비 각각 2.1p, 0.6p 하락했다. /정은솔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유흥가능 (룸, 노래홀, 홀덱)

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

★ 전용 100평 ★ (분양160평)

(보3천, 월수익 350만)

▶ 시세 - 13억

▶ 급매 - 7억 (용4억)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전남

- 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
-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
-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
- 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 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 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

010-6670-9800

062-382-5500